

외국국제자유도시의 언어정책 :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Language Policy in Singapore and Hong Kong

김 종 훈 *

I. 서 론

이 논문의 목적은 외국의 국제자유도시에서는 어떠한 언어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바람직한 언어 정책을 수립 실천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는 언어 정책면에서 외국의 국제자유도시로서 경쟁력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싱가포르와 홍콩의 모형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의 언어 정책과 언어사용 및 언어 교육, 그리고 두 나라에서 사용되는 영어의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싱가포르의 언어 정책

싱가포르는 영어, 중국어(Chinese Mandarin), 말레이어(Malay), 타밀어(Tamil) 등 4개의 언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다. 싱가포르가 이처럼 공용어를 4개의 언어로 정한 것은 복잡한 민족 구성과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1819년 이후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1942년 2차 세계 대전 때 일본의 점령을 당하게 된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945년 일본이 패전하자 싱가포르의 다시 영국의 식민지로 돌아가 마침내 1965년에 독립하게 된다.

한 때 영어 교육을 잘 받아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유리했던 사회 상황은 일본의 지배 하에서는 중국어를 잘 말하고 읽을 수 있는 사람, 다시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수

말해 한자를 잘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상황으로 변하게 되었다. 1945년 이후 영어가 그 지위를 회복했으나, 이전처럼 절대적인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중국어나 말레이어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싱가포르의 복잡한 인종 구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싱가포르 인구 약 3백만 명으로 그중 77%가 중국계, 14%가 말레이계, 7%가 인도계, 나머지는 유라시아나 유럽 또는 아랍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싱가포르가 동남아 무역 중심지로 발전하면서 중국과 인도 및 그 외 지역에서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갖고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예컨대 중국인들만 하더라도 복건어(Hokkien), 조주어(Teochew), 광둥어(Cantonese), 해남어(Hainanese), 객가어(Hakka), 복주어(Foochow) 등 다양한 언어를 사용했으며, 말레이인은 말레이어 이외에 자바어(Javanese), 보야어(Boyanes)를 사용하는가 하면, 인도인의 경우에도 타밀어(Tamil), 말라야람어(Malayalm), 텔루구어(Telugu), 펀잡어(Punjabi), 힌디어(Hindi), 벵갈어(Bengali), 구제라트어(Gujerati) 등 여러 지방의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

2.1 공용어 채택 과정

이 같은 상황에서 싱가포르 지도자들은 싱가포르가 영연방에서 독립한 이후 네 개의 공용어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말레이어, 중국어(Chinese Mandarin), 타밀어는 세 인종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언어로 선택되었고, 영어는 싱가포르가 영국의 식민지라는 배경과 국제어로서의 위상 때문에 공용어로 결정되었다.

이들 네 공용어 중 말레이어가 섬 국가의 역사적 국가적 위치를 반영하여 국어(national language)로 지정되었다. 싱가포르가 말레이 반도 남쪽 끝에 위치한 587.6제곱 킬로미터의 조그만 나라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국어로서 말레이어의 역할은 공적 단계에서는 거의 완전히 상징적인 의미만 갖고 있을 뿐 학교에서도 말레이시아 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필수과목으로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

영어는 어느 종족의 언어에도 속하지 않은 소위 비종족적(non-ethnic)이며 중립적(neutral)인 언어로 싱가포르에서는 사실상 실용어(working language)로 간주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영어는 모든 공식적 공용어 기능을 하는 언어이며, 모든 계층, 모든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유일한 언어다. 젊은 세대 싱가포르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학교교육을 받고 있으며, 모든 영역에서 영어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에서의 영어 사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할 기회를 갖겠다.

또 다른 공용어인 타밀어는, 싱가포르에서 인도인들을 대변하는 언어로 선택된 것인데, 다른 공용어 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놓여있다. 싱가포르에서 인도인들의 사회는 작을 뿐만 아니라 언어와 종교에 있어서도 다양하다. 게다가 많은 인도인들이 그들의 가정에서도 영어를 점점 더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타밀어의 위상은 더욱 약해지고 있다.

중국어(Chinese Mandarin)는 대다수 중국인들의 모국어는 아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는 정책적으로 중국의 표준 문자어인 북경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해 왔다. 북경어는 싱가포르의 중국인 학교들에서 가르쳐졌으며, 교육할 때 언어로 사용되었다. 특히, 싱가포르 지도자들도 1980년 이후 북경어 말하기 운동(Speak Mandarin Campaign)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싱가포르에서는 2000년 기준으로 그 10년 전과 비교할 때 다른 중국어 방언 사용 인구가 30% 인데 반해 북경어 사용 인구는 45%에 이르게 되었다.

북경어 사용에 대한 이러한 증가는 독립 직후와 비교하여 언급할 때 상당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북경어는 독립 전 만 하더라도 싱가포르에서 사용되던 10여 이상의 중국어 방언에도 속하지 못했다. 다음 자료가 이를 잘 뒷받침한다.

1957년 중국어 방언 사용 인구(Liang, 1999: 4)

방언	사용수	비율
전체 인원	1,090,596	100.0%
Hockkien	442,707	40.6%
Teochow	245,190	22.5%
Cantonese	205,773	18.9%
Hainanese	78,081	7.2%
Hakka(Kheh)	73,072	6.7%
Foochow(hokchiu)	16,828	1.5%
Henghua	8,757	0.8%
Hokchia	7,614	0.7%
Kwongsia	292	0.0%
Shanghaiense	11,034	1.0%
Other and Indeterminate	1,248	0.1%

앞 통계에 따르면 북경어 대신 복건어(Hokkien)가 오히려 싱가포르 사람들에게 공통어(lingua franca)로 역할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방언은 표준 중국어 문자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가르치기가 어려워 12개 방언 대신 표준 중국어 문자어인 북경어를 가르치는 정책을 펴게 되었다. 이 작업은 싱가포르의 전 수상 리관유(1982)가 말한 바와 같이 거창하고 지난한 일이었던 것 같다.

It is an enormous tasks to get Chinese Singaporeans, whose mother tongues are some 12 Chinese dialects, to make Mandarin their mother tongue. It is probably the most difficult task we have embarked upon the last 22 years of PAP government. Yet without making Mandarin the mother tongue in place of dialects, our policy of bilingualism will not succeed. Dialects will be crossed and mixed into a Singapore Creole or pidgin.

(Lee Kuan Yew, Speech at the Mandarin Proficiency Certificates Presentation Ceremony. 1982. 12. 25.)

북경어 말하기 운동을 펼친 결과 1980년대 싱가포르 가정에서 북경어 사용 인구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에 기타 중국어 방언 사용은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가정에서의 영어 사용 비율도 점차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0년 대 싱가포르 가정에서 자주 사용된 언어(Liang, 1999: 6)

연도	다른 중국어 방언	북경어	영어	기타 언어
1980	64.4%	25.9%	9.3%	0.3%
1982	42.7%	44.7%	12.0%	0.5%
1984	26.9%	58.7%	13.9%	0.4%
1986	16.1%	67.1%	16.5%	0.3%
1988	9.5%	69.0%	21.0%	0.5%
1989	7.2%	69.1%	23.3%	0.4%

2.2 언어 정책의 특징

이를 볼 때 싱가포르 사회는 몇 가지 경쟁적 언어와 문화 전통이 공존하는

것으로 특징화 될 수 있다. 바꿔 말해 하나의 강한 토착문화나 토착어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싱가포르에서는 빠른 문화적 언어적 동화가 일어날 수 없다. 싱가포르는 이질적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종의 도가니인 셈이다. 지도자들도 문화적 언어적 복수주의를 채택하고 대다수 사람들도 그런 사회에서는 정책적으로도 다언어제도를 취하는 것이 편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처럼 싱가포르는 언어 정책에 관한 한 걸음으로 다언어주의(multi-lingualism) 또는 언어들다원주의(linguistic pluralism)를 내세우고 있다. 그것은 Stewart(1968: 540)가 한 국가의 언어계획정책(language planning policy)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 중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즉, 교육이나 법령에 의해 한 언어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아니라,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중요한 언어들을 인정하고 보존하여 국가 내에서 언어계통들을 넘어 공용 목적으로 그리고 의사소통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언어들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이처럼 싱가포르의 일반적 언어 정책은 다언어주의 언어들다원주의로 가장 잘 기술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네 개의 공용어가 다 똑같은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네 개의 공용어가 정확히 똑 같이 취급되는 것으로 믿지 않는다.

네 언어 중 영어야말로 사실상 국민의 실용어로서 국가 수준에서 통합적 언어로써 기능하고 있다. 영어 사용은 전체로서의 사회와 개별 화자들을 위한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언어다. 다시 말해 그것은 국가의 현대화를 가져오게 하는 언어이다. 다른 한편, 영어는 다른 인종들에게도 다 똑같이 비모국어로서 서로에게 별다른 장점이 없는 언어이다. 한마디로 영어는 어느 종족에게도 꼭 같은 조건으로 사용될 수 있는 중립적 언어로 간주된다. 이 중립적 언어를 종족간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언어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종족간의 갈등을 실질적으로 없애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영어의 위상과 기능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 현대화와 관련 아주 명확히 기술될 수 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 국제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서 무역상 사용되는 언어가 영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싱가포르에서 영어 사용은 외국 자본과 무역 및 산업 투자 유인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서방세계의 다양한 정보와 광범위한 기술을 조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국제어로서 영어 교육과 사용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영어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여러 인종들로 구성된 싱가포르

르에서 좋은 직업, 사업 성공, 높은 지위를 얻는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에서 영어는 국가, 사회, 개인 수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적 수준에서는 영어는 정부의 큰 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용적으로 선택되고 있으며, 사회 수준에서는 영어는 종족간 의사소통을 위해 선택되고 있고, 개인 수준에서 영어 사용 능력은 좋은 일자리를 얻는데 유익한 언어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하여 싱가포르에서 영어 매체 학교에 다닌 학생 수는 1957년 46.7%였던 것이 1959년에 50.9%, 1972년 64.8%로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1975년 조사에 의하면 15-20세 사이 사람들 중 87%가 영어를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rystal, 1997: 51). 지금은 90% 이상의 학생들이 모국어 즉, 북경어, 말레이어, 타밀어를 가르칠 때를 제외하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 지도자들은 국제어로서 영어 사용이 현대 과학기술과 정보의 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화자들에게도 서구의 대중 문화를 접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만 그것이 종종 전통 문화의 가치와 갈등을 야기하고 정체성을 상실케 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리관유(1971) 싱가포르 전 수상은 영어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탈문화화의 나쁜 영향을 받게되어, 싱가포르 사람들에게 종족의 그룹으로서 성공하겠다는 의욕과 의지를 주는 사회적 응집력과 문화적 토대가 없이 뿌리 없이 떠돌아다니는 시민들을 만드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한바 있다. 그는 계속해서 만약 교육을 네 언어로 가르치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네 개의 다른 옹고 그룹을 가르치게되어 네 개의 다른 민족을 만들어내게 되므로 통합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싱가포르는 학교에서 종족어에 해당하는 모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잘하도록 하는 이중언어 교육(bilingual policy)을 실시하였다. 모든 학생들은 유치원 과정부터 영어와 자신들의 종족어를 배워야 한다. 행정, 과학 기술, 무역의 언어, 종족간 의사소통의 언어로서 영어는 물론 문화 유산의 언어인 모국어를 둘 다 능숙하게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Under the policy of bilingual education, all students in Singapore are required to take lessons in English(the first language) and one of the other

official languages(the second language). The pupil is expected to select as the second language of study the language associated with the student's ethnic classification, although there are cases of Malay or Indian pupils taking Chinese as the second language.(Aslin, Min-Er & A. Disclaimer. 2002: <http://www.elangproject.net/elpps/Planning/planning4.shtml>)

그 결과 2000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5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영어와 북경어를 동시에 잘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48%를 보였고, 말레이계 인들은 모든 나이를 통틀어 77% 정도가 영어와 말레이어를 잘 읽고 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도인들 중에서 영어를 잘 읽고 쓸 수 있는 55세 이하 사람들의 경우가 43%, 타밀어를 잘 읽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36%에 달하고 있다. 인도인들의 경우 말레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12%,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이 10%를 보이고 있다. 물론 전체 인구 중 70%가 영어를 잘 읽고 쓸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3 모국어, 제1언어, 제2언어의 의미

싱가포르에서 언어 정책을 고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모국어(mother tongue), 제1언어(1st language), 제2언어(2nd language) 개념이다. 싱가포르에 사는 아이들의 부모가 두 개의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인 경우 아이들도 두 방언을 말하면서 자라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모국어는 두 개의 언어가 되는 셈인데 따라서 이때 모국어란 그들의 방언인종족어(ethnic language)를 가리킨다. 그러나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 교육의 주 매체로 사용되는 언어는 그 아이들의 제1언어가 되며, 이중언어 정책으로 인해 그가 학교에서 배우는 또 다른 언어는 제 2언어가 된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중국어 방언을 사용하는 중국인 아이가 만약 중국어 매체 학교(Chinese-medium school)에 가면 북경어가 교육의 주 매체어이므로 그의 제 1 언어가 되며, 그가 배우는 또 다른 언어(영어, 말레이어, 타밀어)가 그의 제 2 언어가 된다. 반면에 그가 영어 매체 학교(English-medium school)에 가면 그의 제 1 언어는 영어가 되며, 2언어는 다른 세 언어들(북경어, 말레이 타밀어) 중 어느 하나가 된다.

일반적으로 언어학에서는 제 1언어란 어린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배운 언어로 정의되는데 그렇다면 싱가포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제 1, 제 2 언어는 사실상 제 2, 제 3 언어가 되는 것이다. 결국 영어반에 들어온 중국인 아이의 경우 가정에서 방언으로 쓰는 언어(home language)가 모국어이며, 영어는 제1언어, 북경어는 제2언어로 습득하게 되고, 중국어반에 온 중국인 아이의 경우는 가정에서 쓰는 방언이 모국어, 북경어가 제1언어, 영어는 제2언어로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일반언어학의 관점에서는 이 관계를 배우는 순서에 따라 제 1언어(모국어), 제 2 언어, 제 3 언어로 부른다.

2.4. 싱가포르 영어의 특성

싱가포르 영어는 음성적 측면에서 그리고 형태-구조적 측면에서 표준영어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음성적 특징부터 고찰하기로 하자.

우선 싱가포르 화자들은 장모음을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see를 [si:]로 발음한다. 표준영어에서는 이중모음으로 사용되지만 싱가포르 영어에서는 단일모음으로 흔하게 사용한다. 예를 들어 표준영어의 [əʊ]나 [ou]는 [ɔ]로 발음되며, [ei]는 [ɛ]로 발음된다. 표준영어의 애매모음(schwa) [ə]는 나타나지 않고 철자상의 모음 그대로 발음한다. 예를 들어 familiar, conclusion, available의 첫 음절의 발음은 각각 [æ], [ɔ], [a]로 발음한다.

강세의 경우 educated를 educáted로, criticism을 criticísm으로 발음함으로써 강세를 좀 더 뒤 음절로 할당하려고 한다. 표준영어는 제1강세가 문장을 통해 거의 고른 간격으로 나타나는 강세박자언어(stress-timed language)인 반면에 싱가포르 영어는 모든 음절이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분리되는 음절박자언어(syllable-timed language)라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an-ni-ver-sa-ry와 같은 단어에서 제1강세와 제2강세를 똑 같이 하나로 취급한다.

이번에는 형태-통사적 특징을 지적해 보자. 먼저 인칭이나 수에 대한 주어와 동사의 일치체계가 없다.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의 표시도 없다. 예를 들어 This radio sound good. My mother she work very hard. 등이 그 좋은 예이다. Already란 단어도 현재 시제와 더불어 사용된다.

My father already pass away.(My father has passed away.)

I stay in X seventeen years already.(I've lived in X for seventeen years.)

싱가포르 영어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use-to는 습관적 일반적 행위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All Europeans use to go there.
Indian shop, we use to speak English.

Will이 사용되어야 할 곳에 would가 사용되는 것도 싱가포르 영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다음 문장에 잘 나타나 있다.

I hope the government would take action to put a stop to this practice.
I trust that his son would retain his zest for the game.

명사들의 복수형을 만들기 위해 접사를 붙이지 않는 것이 싱가포르 영어의 또 한 가지 특징이다. 그리하여 How many bottle?, My house got two bedroom. 과 같은 구문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주어와 목적어 탈락도 아주 현저히 발견된다. (I) speak Cantonese also. We don(t) have (it/them).

이 밖에 싱가포르 영어의 구문상의 특징을 Platt(1982: 401)을 중심으로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목적어의 도치

One subject they pay for seven dollars.
Is very interesting I find geography.

2. 대명사의 반복

But the grandson, they know to speak Malay.
Some customers, they disapprove if you speak to them in English.

3. 특이한 부가 의문문 사용

You want Mary, is it?
You check out now, is it?
You like Carlsberg, isn't it?

You come with me, can or not?

4. 문장 끝에 la, lah, lor, leh 첨가

Then I get a job there as a part-time la.

Relax, lah. Hurry up, lah.

5. or가 없는 등위문 사용

After two, three times she gave up.

6. and가 없는 등위문 사용

He go in the room, talk to my sister.

7. if가 supposing으로 대체된 조건문 사용

Supposing that a student was to fail...

You go by meter, you got to pay.

Stay longer, they have to over charge('charge extra')

8. so의 다양한 의미

If the age is under, so('then') they stay another year.

So('If') you come late, you don(t) know where to park.

No, I don't think so('that') my English is that good.

So(문장 도입) it depend la.

이처럼 싱가포르 영어는 표준영어와는 다른 특이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싱가포르만이 특이한 성격을 반영한 영어를 싱글리시(Singlish)라 부르는데 이 현상은 싱가포르가 다언어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비롯되고 있다.

그리하여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 사람들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영어를 말하는 화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좋은 영어, 표준영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바 있다. 싱가포르 지도자들은 2000년에 좋은 영어 말하기 운동(Speak Good English Movement)을 전개하였다. "Speak Well. Be Understood."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진 이 운동의 목적은 싱가포르 사람들은 영어를 말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 *Verbs are marked as singular/plural, past tense etc.
- *Nouns are marked as singular/plural.
- *Endings like 'lah', 'lor', 'leh', 'what' are not used.
- *Very informal Singlish words are avoided.

III. 홍콩의 언어정책

홍콩은 아편전쟁(1840-1842)에서 영국에 패해 1842년 난징조약의 체결과 더불어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1997년 6월 30일 자정을 기해 다시 중국에 귀속되었다. 1997년 7월 1일 1국가 2체제 하에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로 편입된 홍콩은 앞으로도 그동안 누려왔던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자치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언어 사용면에서 홍콩은 겉으로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기능하는 영어와 중국어(광둥어)가 공존하는 이중언어사회라 할 수 있다. 거리 이름, 간판, 공식 서류, 정부 간행물 등에 영어와 중국어 두 언어가 다 사용되지만, 영어는 사업 거래상의 주 언어로 사용되고, 광둥어는 가족과 친구간 의사소통의 언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1997년에 홍콩이 중국 본토로 반환 후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식 언어인 북경어(Putonghua 또는 Mandarin)가 광둥어와 영어에 강력한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영어 대신에 행정의 언어로 북경어를 사용하자는 정책이 그 권위와 중요성 면에서 영어와 광둥어를 사용해 온 언어 정책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북경어는 정치와 행정의 언어가 되며, 영어는 기술, 상업, 금융의 언어가 되고, 광둥어는 가정과 친교의 언어가 될 것이다.

3.1 홍콩에서 중국어 사용

홍콩 인구는 약 630만 명으로 그 중 98% 이상이 중국인이며, 그 가운데 89%가 홍콩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 당연히 중국어를 주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문제는 그들이 어떤 종류의 중국어, 어떤 중국어의 방언 내지는 변종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홍콩 주민 대다수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광둥어를 사용한다. 이것은 중국 남부의 광둥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국어 변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중국의 가장 유명한 북부 방언으로 알려져 있는 북경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방언들로 이야기 할 때는 발음이 서로 달라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자 언어에 관한 한 중국의 어떤 지방에서도 똑같은 의미를 전달한다. 그러므로 베이징, 타이베이, 상하이, 홍콩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발음 차이이며 문자의 차이는 아님을 알 수 있다.

홍콩이 영국의 지배를 받은 이래 영어는 홍콩 정부 또는 행정 상층부의 언어로, 대부분의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언어로, 그리고 법정의 언어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 중국어를 공용어로 정하자는 홍콩전국노동당의 제안이 나오자 홍콩 사람의 여러 부류에서 중국어의 위상을 점차 생각하게 되었고 마침 홍콩 정부에서도 중국어를 공식 의사록과 서류에 사용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 중국어 위원회를 임명하였다. 마침내 이중언어법자문위원회(Bilingual Law Advisory Committee) 발족과 더불어 각종 법령들이 중국어와 영어로 발행되었고, 1974년 공용어법(Official Languages Ordinance)에 따라 드디어 중국어도 공용어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그 당시에 홍콩에서는 광둥어가 가장 널리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으나 공용어법은 어떤 특수한 종류의 중국어라 지정하지 않고 단지 “중국어”(Chinese)란 표현만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 용어만 놓고 보면 어떤 중국어인지 애매 모호하고 부정확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광둥어일 수도 있고, 중국의 국가 언어인 북경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 문자로 표현할 때의 언어인 현대 중국어일 수 있으며, 홍콩의 여러 지방에서 말해지는 많은 지역어나 마을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광둥어는 홍콩과 많은 해외 중국인 사회에서 말해지는 방언이지만 의사소통 매개체로서 사회적으로는 북경어 만큼 권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북경어는 중국 본토와 타이완의 공용어로서 중국 본토 인구의 72%(주로 중국 북부 지방 주민들)나 되는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이다. 광둥어는 4개 내지 14개의 성조를 갖는 언어이며, 20개의 어두 분절음, 53개의 어말분절음을 가진 언어인 반면에 북경어는 4개의 성조와 22어두, 38어말 분절음을 갖는 언어이다.

그러나 이 때 문제는 문자언어로 쓰여진 광둥어에 대한 완전한 언어학적 분석이 아직은 없다는 점이다. 홍콩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사용하는 음성언어가

의사소통의 논리적 혹은 문법적 체계로 연구되거나, 문자언어로 표현된 것으로 공부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광둥어에는 문법이 없다는 잘못된 개념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광둥어를 말하는 아이들에게 읽기 과정은 그들 자신의 말이 종종 쓰여질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준다. 많은 구어체 형태들과 일반적으로 일치되는 문자언어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광둥어 말의 어순은 중국의 다른 방언들의 어순과 다르다. 그러나 홍콩의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그들 자신의 가정에서 사용되는 구어를 읽도록 교육되지 않고 현대 표준 중국어라 불리는 것을 읽도록 교육된다. 그리하여 큰 소리로 읽을 때는 그 문자의 광둥어 발음이 사용될 수 있지만 쓸 때는 그들의 모국어와는 다른 어순으로 써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마치 미국 가정에서 흑인 영어 말하는 것을 배운 흑인이 학교에서 표준 영어로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을 배워 나중에 영문학 작품을 원문으로 읽도록 하는 과정과 같다.

중국과 홍콩이 빈번한 접촉을 하게 되자 홍콩 당국은 북경어를 초중등학교의 과목으로 가르치도록 하였다. 북경어는 1986년에 초등학교에서 그리고 1988년에는 중학교에서 과목으로 채택되었다. 교육청은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북경어를 학교의 정규 시간이나 방과후 활동으로 가르치도록 장려하였다. 북경어는 교육부, 언어연구소, 사범대학의 관리하에 교사 훈련 때의 과정으로 채택되었으며, 1989년 5월 940명의 초등학교 교사와 436명의 중학교 교사가 북경어 훈련을 받았다. 1989년 홍콩 교육청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초등학교 중 67%인 473개의 초등학교가 정규 과정에 북경어를 과목으로 넣었고, 전체 초등학교 중 50%인 353개의 초등학교에서 북경어를 방과 후 활동 과목으로 이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학교에서는 27%에 해당하는 133개 학교가 북경어를 공식 교육과정으로 정했으며, 42%인 207개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 과목으로 지정하였다.

3.2. 홍콩에서 영어 사용

앞에서 언급한 대로 홍콩 인구 약 6백만 중 98%가 중국인으로 그들 대부분은 광둥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가 된 19세기 중반이래 아직까지도 영어가 홍콩의 공용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광둥어 유산을 갖는 것을 점차 자랑으로 여기지만 거의 예외

없이 영어의 실재를 인정하여 입법, 사법, 행정의 언어로 그리고 사실상의 학교 필수과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영어의 영향력은 식민교육제도 하에서 중학교의 94%가 영어를 교육언어로 사용한다 해서 짐작할 수 있다.

홍콩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본격적인 영어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중국어에 대한 단단한 기초 세우도록 장려하지만 부모들은 영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더 일찍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홍콩에서는 사실상 유치원에서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유치원 첫날부터 부모들은 영어 숙제가 없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이다. 그들은 영어가 일종의 여권(passport)이며, 명성(prestige)이며, 직업(profession)이라 느낀다. 다시 말해 부모들은 유치원에서의 영어 학습이 더 좋은 학교에 가게 하는, 필요한 시험을 합격하게 하는, 더 좋은 직업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믿고 있다. 유치원에서는 영어 수업과 영어 숙제 외에도, 몇몇 어린이들을 위해 방과후 영어 지도교사제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홍콩에서는 어릴 때부터 영어에 집중시키고 영어에 최대한 노출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때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중국어만을 교육 매체어로 사용하는 중국인 학교들(Chinese medium-schools)이 많이 세워졌으나, 점차 그런 학교들보다 주로 영어를 교육의 매체어로 사용하는 학교들(English medium schools)이 증가한 적이 있다. 부모들이 영어에 계속 자식들을 노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영국인 중학교를 대부분 선호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중국어로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영어 매체 중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1972년 기준으로 볼 때 영국인 영어 매체학교 학생 수가 중국인 학교 학생 수 보다 세배 이상 많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Platt, 1982: 407) 이들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과목들이 영어나 중국어로 가르쳐 졌는데, 특히 영어, 영문학, 불어, 타자, 속기 등의 과목은 영어로만 수업이 진행되었다.

홍콩의 주요한 경쟁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학생들은 영어에 어느 정도 의사소통능력이 있다는 것이 시험에서 입증되어야 한다. 홍콩 대학교(University of Hong Kong)에서는 중국어과를 제외하고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문대학(Chinese University), 홍콩종합기술대학(Hong Kong Polytechnic), 사범대학(College of Education) 등에서는 영어와 중국어(광둥어)로 강의를 하고 있다.

홍콩 주민들도 영어능력을 신장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그리하여 1978년 홍콩 인구 중 10세 이상 되는 사람들 가운데 25%가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다. 1983년 영국문화원이 개설한 영어 수업에는 35000명이 참여하는 열의를 보였으며, 롱맨출판사 등에서도 영어학원을 열었고, 학교를 낮에 다닐 수 없는 공장과 사무실 근무자들을 위해서도 영어 과정이 개설되었다. 이처럼 홍콩 주민들은 영어를 배우려는 결단력이 매우 강하다. 그들은 영어를 학습을 아주 실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영어를 더 많이 배우고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직업을 갖는 기회를 준다고 믿고 있다.

홍콩에서는 또 신문과 방송이 영어 보급에 일정한 역할을 해 왔다. 1977년에 네 개의 영자신문을 포함하여 198개의 신문이 발행되고 있었는데 영자신문은 교육을 잘 받고 경제 수준이 높은 중국인들이 주로 읽는 신문이 되었다.

홍콩에서는 2개의 라디오 방송국과 2개의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영어로 방송하고 있다. 방송국은 홍콩 국영 라디오 방송국(Radio Television Hong Kong: RTHK)과 상업 라디오 방송국(Commercial Radio)이 그것이다. RTHK에서는 영어로 2개의 채널, 중국어로 2개의 채널로 방송하고 있으며, 상업방송국에서는 2개의 중국어 방송 채널과 1개의 영어 방송 채널을 갖고 있다. 또 HK-TVB와 RTV 두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둘 다 영어와 중국어로 방송을 내 보내고 있다.

영어는 홍콩이 그 자체 조그만 중계 무역센터에서 국제무역과 상업 기지로 변화되었기에 그 중요성이 더해졌다. 영어 사용의 필요성은 무역과 제조업 기반은 물론 상업, 금융, 전시센터로의 개발과 더불어 성장해 왔다. 그 속에서 세계적인 전자 의사소통 망이 발전하였고,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영어로 하루하루 일을 수행하는 지역 본부가 되었다. 1887년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의 직장에서는 영어가 66.8%, 광둥어가 31.82%, 북경어는 1.3% 사용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영어는 홍콩의 많은 자산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그것은 아름답고 귀중한 자연 못지 않은 혜택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후 영어의 가치가 떨어지고 북경어에 의해 굳건했던 공용어 위상이 흔들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일례로 홍콩 반환 이전에 중등학교의 60% 이상에서 영어를 교육의 매체로 사용해 왔으나, 반환 이후에는 25%만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75% 학교에서 중국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86%의 학교에서 계속 영어를 수업의 매체로 사용하고 있다.

3.3. 이중언어사용의 의미

홍콩도 싱가포르에서처럼 영어와 중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이중언어 사회이다. 그러나 홍콩에서 이중언어사용(bilingualism)이란 개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약간씩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Chau(1981)은 이중언어사용에 대한 Haugen(1956)의 견해, 즉 두 언어를 알고 있는 상태(knowledge of two languages) 또는 두 언어를 아는 능력(a dual competence)이란 정의를 따라 홍콩이 이중언어 사회라 보고 있다.(Fu, 1987: 33) 그러나 Chau(1981)은 제2언어에서는 모국어에서와 같은 능력을 갖출 수 없으므로, 이중언어사용자(bilingual)는 오직 한 언어와 절반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Richards & Luke(1981)은 홍콩이 두 개의 큰 단일 언어 사회가 비교적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병존하는 사회(two largely monolingual communities coexisting in relative social isolation)로 보고 사회적 이중언어사용(societal bilingualism) 사회라 느끼고 있다. Fishman(1974)과 더불어 그들은 사회적 이중언어사용 상태와 개인적 이중언어사용 상태를 구분하고 홍콩의 경우는 이중언어사용이 없는 양층언어 사회(diglossia without bilingualism)라 부르고 있다. 이에 대한 Fishman(1974)의 구체적 견해는 다음의 인용문에 잘 나타나 있다.

A society where two or more languages are used, but in which (a) individual linguistic repertoires are largely confined to one of the languages of the society; (b) a single language is used for intragroup communication; (c) bilingualism is restricted to certain domains of intergroup contact; (d) the bilingual population is narrowly based, rather than being a broadly based population segment; (e) speech communities are marked by relatively impermeable group boundaries; (f) the society does not consist of a single speech community but two distinct speech communities; (g) intragroup monolingualism rather than bilingualism is the norm. (Richards & Luke, 1981: 8)

어찌하든 걸로 보기에 홍콩은 중국어와 영어 말하는 그룹이 거의 모든 사회 기관, 즉 교육, 신문방송, 행정, 오락 등의 방면에서 두 언어를 접할 수 있

는 이중언어 사회이다. 그러나 한 언어를 말하는 화자들 대다수에게 그와는 다른 언어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리하여 Richards & Luke(1981)은 홍콩에서 영어가 제2언어도 아니고 외국어도 아닌 보조언어(auxiliary language)로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Cheung(1984)은 홍콩에서 영어는 광범위하게 널리 사용되는 거의 제2언어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같은 견해들은 이중언어사용의 개념을 완전히 두 언어를 모국어처럼 능숙하게 잘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는 것부터 두 번째 언어에 대해 최소한의 능력만 있으면 이중언어사용자라고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리하여 Fu(1987: 34-35)는 홍콩에서 의 언어 상황을 제1언어에 교육의 수단으로 제2언어가 첨가되는 상태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고 있다. 제1언어가 중국어라면 교육할 때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것은 제2언어가 되며, 제1언어가 영어인데도 교육할 때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 교육할 때 쓰는 언어가 제2언어가 되는 셈이다. 이를 Fu(1987: 34)는 2차 이중언어사용(secondary bilingualism)이라 부르고 있다.

3.4 홍콩 영어의 특성

홍콩 영어는 음성적인 면에서 그리고 형태-통사적인 면에서 표준 영어와 다른 점이 많다. 여기서는 Platt(1982: 409-410)을 통해 홍콩 영어의 특징을 검토해 보자. 먼저 음성적인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싱가포르 영어에서처럼 홍콩 영어에서도 모음을 발음할 때 이중모음을 단일모음으로 그리고 장모음을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예를 들면 *takes*, *joking*, *sharks*는 각각 [tɛks], [dʒɔkɪŋ], [ʃɔks]로 발음한다.

자음을 발음할 때는 자음군을 탈락시키거나 어말 자음을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다. 가령 *one thousand dollar(s) a month*, *we cannot afford*, *old private apartment*에서 괄호 속의 자음을 발음하지 않는다. 싱가포르 영어와는 달리, [k]나 [t]는 성문 파열음(glottal stop) [ʔ]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snake*는 [sneʔ]로 발음된다. 설측음 [l]은 설탄음 [ɭ]로 대체되어 *English*와 *college*는 각각 [ɪŋɡɪʃ], [kɔləʒ]로 발음한다. 그러나 어두 [r]과 [t] 다음 [r]은 [w]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railway*와 *train*은 [weɪwɛɪ],

[twɛn]으로 발음된다. 강세와 억양도 표준영어와는 다르다. 홍콩 영어는 싱가포르 영어에서처럼 균일한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Néw Tèrrítóríes*가 그것이다. 또 *football, populated, usually*에서처럼 단어 끝에 주 강세를 붙이거나, 아무런 대비 강세를 붙일 의향이 없는 경우에도 구나 문장의 끝에 강세를 할당한다. 예를 들면, *Where all de movie come from, You give money to him.* 등이 그 좋은 예이다.

홍콩 영어에서는 표준영어의 단어를 발음할 때 광동어의 음절구조에 맞게 불필요한 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support*란 단어를 홍콩 사람들은 *sup-m-support*라고 발음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이번에는 홍콩 영어의 형태-통사적인 면에서의 특징을 지적해 보자. 우선 명사의 복수형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He give all de picture(s) to you, Where de movie(s) all come from, His four wive(s)*에서처럼 괄호 안의 복수형 접미사를 쓰지 않는다.

이와 비슷하게 3인칭 단수 현재형 [s] 표시가 없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He like(s) de boy(s) better den de girl(s).*

Be-동사로 대표되는 계사(copula)도 나타나지 않는다. *De Vietnam people (are) smuggle(d) ou(t), English (is) main language of instruction.*

아래 예에서 보듯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표시도 없다.

Mandarin, I learn(ed) it privately.

X(회사 이름) give me a good training.

I don't learn at secondary school.

주어, 특히 *it*이 문장 속에 쓰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Here (it) is not allowed to stop the car.

Doctor? (he) spea(ks) also Cantonese.

목적격 대명사도 문장 속에서 찾을 수 없다. 다음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이 점을 잘 알 수 있다.

A: And you finished M(책 이름)?

B: Yes, finish.

A: You liked it?

B: I don't like.

부정관사와 정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도 홍콩 영어의 또 다른 특징이다.

I don'(t) have (the) patience to learn.

Say you're doing (a) receptionist job.

You can see de China ri(ght) across.

I can ta(ke) ('eat') de sna(ke) but I can(t) ta(ke) de dog mea(t).

홍콩 영어에서는 대명사가 자주 중복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Our Chinese people

We like fishing very much de shrim(ps).

De farmer(s) dey do de gardening ou(t)si(de) dere.

V. 결 론

지금까지 외국의 국제자유도시로 크게 발전한 싱가포르와 홍콩의 언어 정책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두 나라의 언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이중언어정책(bilingual policy)을 펴고 있다는 점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그 나라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종족의 언어인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중 어느 한 언어와 영어를 둘 다 잘 구사하도록 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도 비록 1997년 중국으로 반환한 이후에는 사정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중국어는 물론 영어를 동시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천해 오고 있다.

이 사실은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도 어떻게 언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바람직한지를 시사해 준다. 우리의 경우도 세계 의사소통의 수단인 언어로서 영어를 잘 구사할 수 있고, 제주인의 정체성과 문화 보존을 위해 한국어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사용자(bilinguals)를 양성하는데 언어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비록 그 두 나라처럼 영어를 꼭 공용어로 정하지 않더라도

도 영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영어 교육을 강화하며 영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영어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르며, 민족의 전통과 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말과 우리 글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성공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 두 외국의 국제자유도시가 세계적인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 큰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기업 활동하면서 영어로 의사소통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는 점 외에 자신의 언어와 문화도 잘 지키고 보존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Aslinn, Min-Er & A. Disclaimer. 2002. *English Language Planning and Policy in Singapore: Sociolinguistic Background of Singapore*. <http://www.elangproject.net/elpps/Background/background.shtml>
- Chau, F. 1981. "A Bilingual Study-Hong Kong". University of Pennsylvania. Ms.
- Cheung, Y. S. 1984. "Conflicts in the Uses of English and Chinese Languages in Hong Kong". *Language Learning and Communication* 3(3)
- Crystal, D. 1997.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shman, J. A. 1974. "Language Planning and Language Planning Research". In J. A. Fishman. ed. *Advances in Language Planning*. The Hague: Mouton.
- Fu, G. S. 1987. "The Hong Kong Bilingual". In Lord. R. & H. N. Cheng. ed. *Language Education in Hong Kong*. Hong Kong: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 Goh, N. W. 1999. *Mother Tongue: What it Means to Singapore*. Singapore: SNP Editions Pte Ltd.
- Haugen, E. 1956. *Bilingualism in the Americas: A Bibliography and Research Guide*. Publications of the American Dialect Society. 25.

- Kuo, E. C. Y. 1983. "Language Policy and Nation-Building in the Multi-Ethnic Society: The Case Singapore Model." *Proceedings of Kokugakuin University Centennial Symposium*.
- Lee, K. U. 1981. Speech at the Mandarin Proficiency Certificates Presentation Ceremony.
- Liang, C. C. 1999. "Inter-general Cultural Transmission in Singapore: A Brief Discussion". *65th IFLA Council and General Conference*.
- Lord, R. 1987. "Language Policy and Planning in Hong Kong: Past, Present, and(Especially) Future". In Lord, R. & H. N. Cheng. ed. *Language Education in Hong Kong*. Hong Kong: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 Platt, J. T. 1982. "English in Singapore, Malaysia, and Hong Kong". In Bailey, R. W. & M. Gollach. ed. *English as a World Languag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Pierson, H. 1996. "Cantonese, English, or Putonghua-Unresolved Communicative Issue in Hong Kong's Future". In Postiglione, G. A. ed. *Education and Society in Hong Kong*.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 Richards, J. C. K. K. Luke. 1981. "English in Hong Kong: Functions and Status." Paper Presented at the 16th RELC Seminar. Singapore.
- Stewart, W. A. 1968. "An Outline Sociolinguistic Typology for Describing National Multi-lingualism". In J. A. Fishman. ed. *Readings in Sociology of Language*. The Hague: Mouton.